

# 성탄과 성탄 즈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1. 성육신의 역사성과 독특성 강조

성육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모든 사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과 독특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성육신이 다른 역사적 사실들과 같이 일어난 것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수태된 것의 역사성, 그 뒤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나신 일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의 출산 등을 모두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때 이와 함께 잘못된 정보가 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매우 애를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부모님과 교사들이 가르친 것 가운데 잘못된 요소가 있는 것을 알고 제대로 가르친 것까지를 의문시하도록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경건한 허구”를 섞어 가르치게 되면 후에 의심이 몰려 올 때 모든 것이 거부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1)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연대를 모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연대를 새롭게 기록해 보려던 (Scythia Minor 출신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우스(Dionysius Exiguus)가 로마에서 525년에 시작한 계산법에 착오가 부가되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연도를 BC 4년을 생각하지만, BC 6년,<sup>1)</sup> BC 7년, BC 12년이나<sup>2)</sup> 심지어 18년까지도<sup>3)</sup>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정확한 연대도 모른다. 성경은 대강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지 정확한 연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더구나 우리는 주께서 어느 날 탄생하셨는지 모른다.<sup>4)</sup> 초기 기독교 역사가의 한

사람인 Sextus Julius Africanus (c. 180–c. 250)에 의해서 221년에 처음으로 (부정확하게) 예수 탄생 기념일로 언급된 12월 25일은 로마 교회에서 이교시절에 로마인들이 “패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일”(Dies Natalis Solis Invicti, the birthday of the undefeated sun)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던<sup>5)</sup> 태양신 축제 (solar festival)를<sup>6)</sup> 대신하여 “의의 태양”이 되신<sup>7)</sup>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정하여<sup>8)</sup>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온 것의 연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도로 말해도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12월 25일에 예수님의 생일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9)</sup>

(3) 또한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한 천사 가브리엘(눅 1:26–38)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한 “주의 사자”(눅 2:9), 그리고 그 후에 그 천사와 같이 있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찬양한 수많은 천군들(눅 2:13–14) 결국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며, 가브리엘의 이름이나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특히 조작이나 이상 중에 나타난 경우가 아니라 천사가 직접 나타난 경우에는 날개를 달고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것에 유의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칼빈은 그렇다면 왜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답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 정도에 맞추어 표현하면서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잘 설명한 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이 건전한 해석들에 근거한 사유를 하고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

(4) 또한 천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선언을 듣고서 목자들이 와서 구유

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눅 2:15–20)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찾아와 예물 드린 사건(마 2:1–12)은 시간적 거리를 지닌 사건임을<sup>11)</sup> 분명히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온 것인지를 성경이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숫자를 셋으로 강조하여 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6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방에서는 8세기에 상당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부가된 이름인 Caspar, Melchior, Barthasar 등의 이름을<sup>12)</sup>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13)</sup>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육신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성을 분명히 하면서 가르치다가 초등부 고학년부터는 그 시기나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회의주의를 극복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에 올려 올 수 있는 회의를 미리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으며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그런 회의적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면서 그 역사성과 독특성을 미리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

## 2.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 가르치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측면을 놓치는 것은 핵심을 빼는 것이며, 성육신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과 무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구조가 상당히 다른데 익숙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교회 전체가 바른 성격적 가르침에 좀더 친숙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적으로 성육신의 종말론적 성격을 언급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어떻게 구약이 약속한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는 않지만 사실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에도 벌써 그런 의미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돌아보심을 말하며(눅 1:48), 능하신 이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라고 말한다(눅 1:51-53). 이는 구약이 말하는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하실 것으로 언급된 것들을 열거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찬가는 일종의 종말론적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찬송인 것이다. 또한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일에 대한 선언도(눅 2:10, 11) 결국 종말론적 메시아의 임함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결례의 날이 찬 40일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고 찬송한 시므온의 찬송에도(눅 2:30-31) 이런 종말론적 의식이 있다고 해야 한다. 또한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할 때(눅 2:38) “예루살렘의 구속됨”이라는 말에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되는 것은 모두가 구약의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는 종말을 그 안에 가져오신 것이다. 따라서 종말론적 메시아로 오신 그 안에 있는 모든 날들은 이제 모두 다 종말론적인 날들이다.

### 3. 구속 사건의 토대로서 성육신의 의미 가르치기

그러나 그리스도(즉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구속이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즉 그가 성육신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 즉 구속의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육신은 그 자체가 모든 구속을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구속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육신이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육신은 구속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성육신이 없이는 구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인 것이다. 구약이 준비한 구속사적 사건을 마무리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의 하나인 것이다. 성육신에서 이점이 가르쳐 질 때에야 성육신과 구속의 정확한 관계가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4. 성육신에 비추어 본 기독교적 실재론 가르치기

성육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몸을 모두 중요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강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의 빛에서 인간의 전체성, 즉 전인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기독교적 일원론의 의미를 잘 가르침 받고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기독교는 영혼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다. 몸을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여 천대하고 영혼만을 강조하던 영지주의(Gnosticism)는 오래 전에 비기독교적인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많은 교부들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항하여 싸웠다. 이처럼 성육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경우나 인간의 영혼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 기독교에서 전인 기독교로의 전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영혼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영육이원론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영육이원론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이원론(dualism)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일원론(Monism)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기독교 일원론(Christian monism)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적 이원론(Christian dualism)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이원론은 상대적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몸과 영혼의 두 실체로 구성되었음을 말하면서도(온건한 이원론), 그러나 그 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거의 나뉘질 수 없음을 말

하는 “영육통일체”(psycho-somatic unity)를 강조하는 입장과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 실재이신데, 그가 자신 밖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창조하셔서 참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이중적 실재론(two-layer theory of reality)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어떤 종류의 만유재신론(pantheism)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원론적이나, 그래도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만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적 일원론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내재를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초월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이원론적 일원론이 기독교적 실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제대로 가르쳐 질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온전한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성육신에 비추어 본 구속된 인간관 가르치기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빛에서 우리는 구속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찌그러버린 사람들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해서 본받아 가고 따라 가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있다. 그러므로 성육신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를 따라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가지셨음을 온전히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교한 일이 있다:

*그는 영처럼 나무까지 앉았으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그는 눈, 코, 입, 귀, 가슴, 배, 손, 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을 빨았으며, 그의 모친은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를 양육하였습니다.<sup>14)</sup>*

이렇게 말할 때 루터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인성을 강조하는 말은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과 워필드와 도날드 맥클라우드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하며,<sup>15)</sup> 그의 이런 측면을 본받아 가도록 해야 한다.

구속된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구속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적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간이다. 그런 뜻에서 구속된 인간은 별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다. 구속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6. 성육신에 비추어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가르치기**

마지막으로 성육신을 가르친 결과로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경배에로 나아가는 일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 경배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그 지경의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였듯이,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였듯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난 후에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시 나이다”[요 20:28]) 그에게 경배하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예배이다”고 말하는 맥클라우드 교수의 말은<sup>16)</sup> 매우 옳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예배하고 그만 높이는 실질상의 성자 유니테리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sup>17)</sup> 삼위 일체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리고 삼위 일체 하나님과 교제 하는 삶을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전반적 분위기를 볼 때 이렇게 (1)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터에서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지, (2) 그 예배를 성자의 구속 공로에 의존하여 감당하려 하므로 실질상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3) 그렇게 중요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내신 지침에

따라서, 즉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sup>18)</sup>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교육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는가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누가복음 2:1-2의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된 해를 계산해서 주전 6년으로 계산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Cf. Bonnie Blackburn and Leofranc Holford-Streven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Year: An Exploration of Calendar Customs and Time-recko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reprinted & corrected, 2003), 776, 명확히 연도를 확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누가 복음의 기록에 근거해서 주전 7-6년을 개연성 있는 연도로 제시하는 Robert H. Stein, 『메시아 예수』(서울: MP, 2001), 61도 보라.

2 이 두 가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왕이 죽은 것은 주전 4년 유월절 바로 전으로 보는 데서 기원한다. 이에 대해서는 Blackburn and Holford-Streven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Year*, 770을 보라. 이와 관련하여 동방 박사들이 찾아 온 것을 주전 7년 9월 15일에 있었던 항성들의 직렬 배열로 보는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7년을 생각하며, 이를 할리 해성과 동일시하는 이들은 BC 12년을 생각하는 것이다. Cf. "Anno Domini," available at: <http://en.wikipedia.org/wiki/AD>, accessed on 3 October, 2008. 후자에 대해서는 Stein, 『메시아 예수』, 63도 보라. 스타인 자신은 주전 5-7년으로 생각하면서 추론적 견해를 제시한다(59).

3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에 의존하여 이렇게 이른 연대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한다. Cf. Blackburn and Holford-Streven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Year*, 776.

4 그러므로 언제 그가 탄생하셨는지를 추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Clement of Alexandria는 5월 20일을 그의 탄생일로 추론하여 언급했다고 한다. Cf. "Christma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80.

5 현대력으로 동지는 12월 21이나 22일 오지만 시저(Julius Caesar)가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을 도입한 BC 45년에는 로마인들이 Bruma라고 부르던 동지가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이었다고 한다. Cf. "Bruma," available at: <http://www.cs.utk.edu/~mclennan/BA/SF/WinSol.html>, accessed on 3 October, 2008.

6 이것도 당시에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었으니, 이를 도입한 황제가 엘라가발루스 황제(Emperor Elagabalus, 218-222)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전역에 확대되어 그 기념이 많은 일반화된 것은 아우렐리안 황제(270-74) 휘하에서라고 한다. Cf. "Sol," *Encyclopædia Britannica* (Chicago, 2006).

7 이 때 많은 이들의 생각에 말라기 4:2 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말하는 요 1:9과 같은 구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8 12월 25일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으로는 *Philocalian calendar*에 336년 12월 25일을 “natus Christus in Betleem Judeae”로 언급한 것이 있다. 로마 주교 리베리아스에 의해 354년경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여전 4세기 후반에 와서 일반적으로 이날이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Cf. "Christmas,"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80. 또 다른 견해는 예수의 수태일이 3월 25일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9개월 후에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헨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아 12월 25일을 기념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Cf. "Christmas," available at: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15686/Christmas#tab=active~checked%2Citems~checked&title=Christmas%20---%20Britannica%20Online%20Encyclopedia>, accessed on 3 October, 2008.

9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일에 대한 비판적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로 다음을 참조하라: Chris Durston, "Lords of Misrule: The Puritan War on Christmas 1642-60," *History Today* 35/12 (December 1985): 7 - 14; 그리고 이승규, 『조직신학에서 본 청교도 사상』,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서울: SFC, 2005), 131, n. 38에 언급된 글들을 보라. 미국 청교도들도 그런 태도를 취하여 1659-1681년에 보스턴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금해졌다고 한다. 이에 비해 청교도적 영향력이 덜 했던 버지니아와 뉴욕 거주민들은 자유롭게 성탄절을 지켰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성탄절을 매우 열정적으로 지켰다고 한다. 독립 전쟁 전후에는 이것이 영국적 관습으로 여겨져서 무시 되었다가 1820년대에 미국에서 성탄절 지키는 일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다. Cf. [http://en.wikipedia.org/wiki/Christmas#cite\\_ref-cinne\\_24-0](http://en.wikipedia.org/wiki/Christmas#cite_ref-cinne_24-0), accessed on 3 October, 2008.

10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김홍진, 『성탄절 강설』(서울: 성약, 1985)과 Stein, 『메시아 예수』, 59를 보라.

11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김홍진, 『성탄절 강설』(서울: 성약, 1985)과 Stein, 『메시아 예수』, 59를 보라.

12 Cf. "The Biblical Magi," available at: [http://en.wikipedia.org/wiki/Biblical\\_magi](http://en.wikipedia.org/wiki/Biblical_magi), accessed on 4 October, 2008. 500년경 히랍어로 작성된 연대기에서 처음으로 이구스도 통치 때에 1월 1일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 했다고 하고 그 이름을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고 한다: Bithisarea, Melchior and Gathaspa, (*Excerpta Latina Barbari*, page 51B).

13 이를 위해 이승규, 『성령으로 잉태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 125-37을 보라.

14 Martin Luther, *Sermons on the Gospel of John*, in *Luther's Works*, vol. 22 (St. Louis: Concordia, 1957), 113.

15 Cf. John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Peter*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3), 55; idem,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vol. III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945), 227, 228, 230; B. B. Warfield,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0), 93; MacLeod, 230-42.

16 MacLeod, 『그리스도의 위격』, 356, 첫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7 이에 대한 간단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요약으로 이승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백』, 『사도신경』(서울: SFC, 2008), 15-24를 보라.

18 이 점에 대해서는 이승규, 『성경적 공예배를 지향하며』, 『한국 교회와 나아갈 길』(서울: SFC, 2007): 39-71을 참조하라.